

# 동방신기-SM, 오늘(12일) 법원에 최종입장 표명 '종지부 찍을까?'

입력 2009. 10. 12. 11:13 · 수정 2009. 10. 12. 11:13



[뉴스엔 이미혜 기자]동방신기 세 멤버와 SM엔터테인먼트가 10월 12일 법원에 최종 서면을 제출한다.동방신기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매키유천(본명 박유천)과 SM엔터테인먼트(SM)간의 전속계약 분쟁관련 재판부에 마지막 서면을 제출해 최종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법무법인 세종 측 관계자는 "오늘 마지막으로 입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당초 양측 입장을 담은 서류 제출기한은 9월 11일이 마감이었으나 서류 제출기한이 촉박해 10월 12일을 최종 마감일로 정한 것.

재판부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나 양측이 이런저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 결론이 안 나고 있다"며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어 이번 최종 서면 제출로 인해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1일, 유노윤호(본명 정윤호), 최강창민(본명 심창민)을 제외한 동방신기 세 멤버와 SM이 공인으로서 책임을 고려,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합의를 권고했지

만 결국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서면제출로 양측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동방신기 세 멤버들은 지난 7월, 13년 전속 계약에 대해 사실상 종신 계약이라는 뜻을 담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SM은 서로 합의하에 갱신해온 합당한 계약이라는 입장을 표명,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미혜 macondo@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